

# 시계열 예측

김태경

# Chapter 01 시계열 분석 개요

# 시계열 자료(time series data)

- 연도별, 분기별, 월별, 일별, 시간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관측되는 자료
- • 예 : 국내총생산(GDP), 물가지수, 판매량, 종합주가지수(KOSPI), 강우량, 태양 흑점수, 실험 및 관측자료 등
- 시간 단위 외에도 사회적 변화나 환경적 변동요인을 기준으로 시계열자료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.

# 시계열 자료(time series data)

-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는 추세변동, 순환변동, 계절변동, 불규칙변동 요인으로 구성된다.
- 시계열들은 생성되는 특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연속시계열(continuous time series)과 이산적 시점에서 생성되는 이산시계열(discrete time series)로 구분할 수 있음.
- 실제로는 많은 시계열들이 연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관측되므로 이산시계열의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음.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- 시계열자료(time series data)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관측된 자료이므로 시간에 영향을 받음.
  - 시계열자료를 분석할 때 관측시점들 간의 시차(time lag)가 중요한 역할을 함.
  - 예를 들어 오늘의 주가가 한달 전, 일주일 전의 주가보다는 어제의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관측시점일 수록 관측자료들 간에 상관관계가 커짐.
  - 시계열은 일반적으로 시간  $t$ 를 하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됨.  
 $\{Z_t : t=1, 2, 3, \dots\}$  또는  $Z_1, Z_2, Z_3, \dots$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- 시계열분석(time series analysis)의 목적
  - 과거 시계열자료의 패턴(pattern)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(forecast)을 한다.
  - 시계열자료를 분석할 때 관측시점들 간의 시차(time lag)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.
  - 시계열자료가 생성된 시스템 또는 확률과정을 모형화하여 시스템 또는 확률과정을 이해하고 제어(control)할 수 있도록 한다.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■ 예측, 계획 그리고 목표

- 예측은 경영분야에 있어서 생산 계획, 수송, 인사에 관한 결정을 알리거나 장기 전략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흔한 통계적 업무이다.
- **목표**는 예측 및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좋지만, 이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.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 없이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.
- **계획**은 예측과 목표에 대한 대응입니다. 계획은 여러분의 예측과 목표를 일치시키는데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일을 포함한다.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- **단기 예측**은 인사, 생산, 수송 계획 등에 필요하고, 계획 과정의 한 부분으로 수요 예측도 필요하다.
- **중기 예측**은 원자재 구입, 신규 채용, 장비나 기계 구입 등 미래 자원 공급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.
- **장기 예측**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하고, 시장 기회, 환경 요인, 내부 자원을 반드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시계열의 형태(the components of time series)

- 불규칙변동(irregular variation 또는 확률적 변동 : random variation)은 시계열자료에서 시간에 따른 규칙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어떤 규칙성이 없이 예측이 불가능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을 말함.  
예 : 전쟁, 홍수, 화재, 지진, 파업 등
- 체계적 변동에는 장기간에 걸쳐 어떤 추세로 나타나는 추세 변동(trend variation), 추세선을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순환변동(cyclical variation),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여 1년 주기로 나타나는 계절변동(seasonal variation)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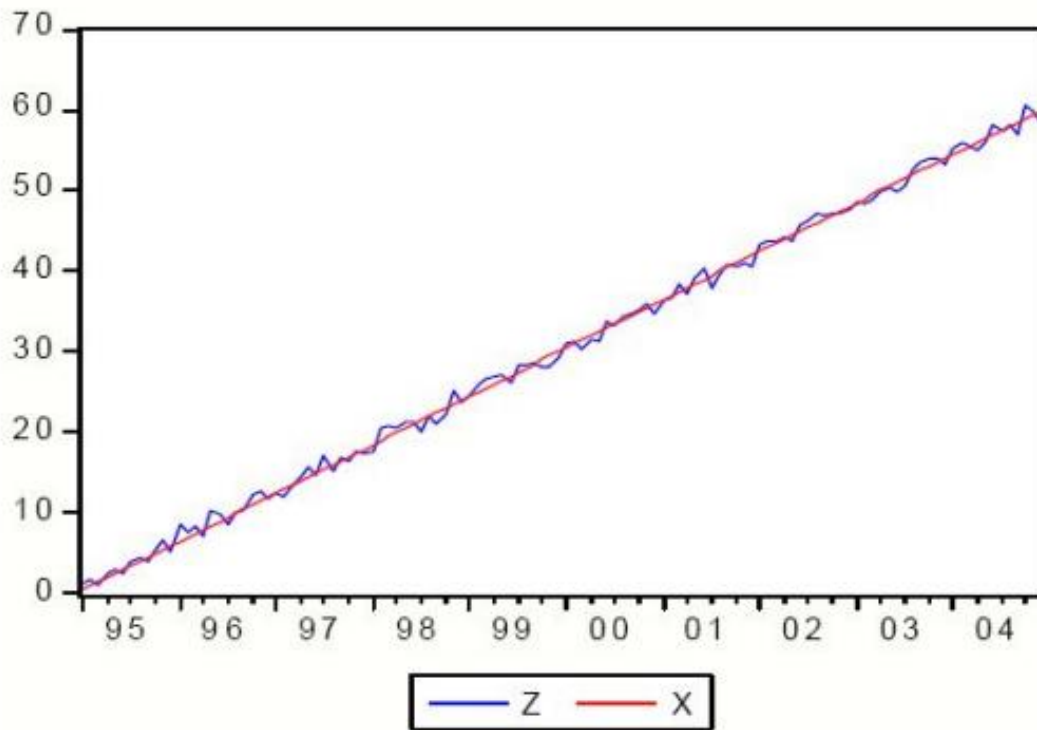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추세변동(trend variation)

- 추세변동이란 시계열자료가 갖는 장기적인 변화추세임.
- 추세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또는 일정한 상태(stationary)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함.
- 그러므로 시계열자료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는 추세변동을 찾기 어려움.
- 따라서 추세변동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직선이나 부드러운 곡선의 연장선으로 표시함. 이러한 추세는 직선뿐만아니라 곡선, s자 형태의 추세를 가질 수도 있음.
- 예 : 국내총생산(GDP), 인구증가율, 기술변화 등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추세변동(trend variation)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추세변동(trend variation)

```
import numpy as np
import pandas as pd
```

```
# DatetimeIndex
dates = pd.date_range('2020-01-01', periods=48, freq='M')
```

```
# additive model: trend + cycle + seasonality + irregular factor
timestamp = np.arange(len(dates))
trend_factor = timestamp*1.1
cycle_factor = 10*np.sin(np.linspace(0, 3.14*2, 48))
seasonal_factor = 7*np.sin(np.linspace(0, 3.14*8, 48))
np.random.seed(2004)
irregular_factor = 2*np.random.randn(len(dates))
```

```
df = pd.DataFrame({'timeseries': trend_factor + cycle_factor + seasonal_factor + irregular_factor,
                  'trend': trend_factor,
                  'cycle': cycle_factor,
                  'seasonal': seasonal_factor,
                  'irregular': irregular_factor},
                  index=dates)
```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추세변동(trend variation)

```
# Time series plot
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

plt.figure(figsize=[10, 6])
df.timeseries.plot()
plt.title('Time Series (Additive Model)', fontsize=16)
plt.ylim(-12, 55)
plt.show()
```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추세변동(trend variation)

```
# -- Trend variation  
#timestamp = np.arange(len(dates))  
#trend_factor = timestamp*1.1
```

```
plt.figure(figsize=[10, 6])  
df.trend.plot()  
plt.title('Trend Factor', fontsize=16)  
plt.ylim(-12, 55)  
plt.show()
```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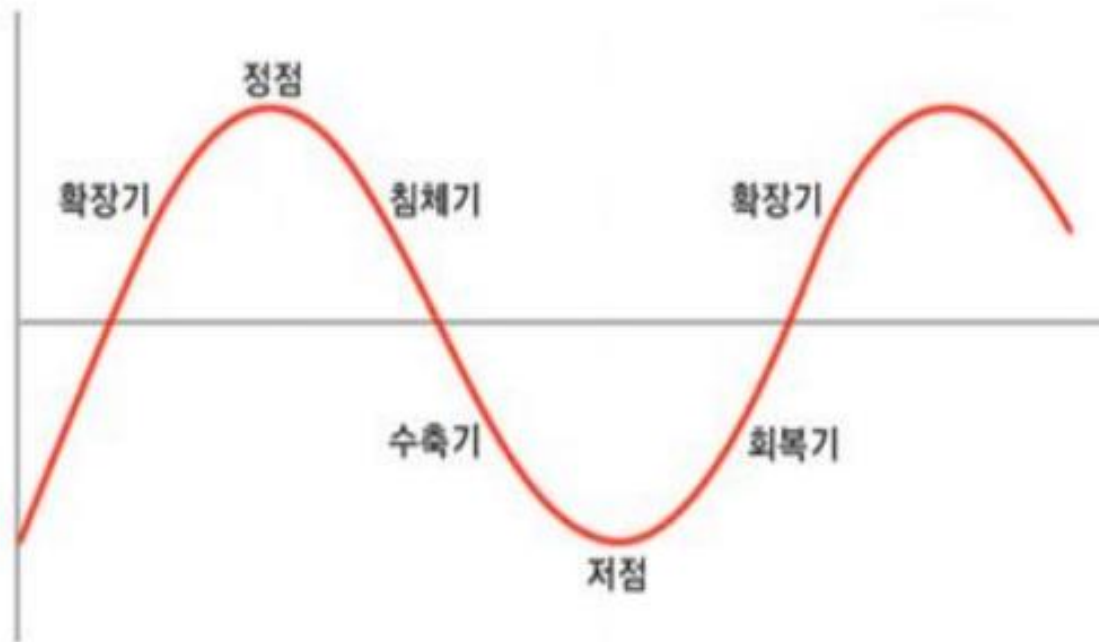
## 순환변동(cyclical variation)

- 추세변동은 장기적으로(일반적으로 1년 초과) 나타나는 추세경향이지만, 순환변동은 대체로 2~3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순환적으로 나타남.
- 즉, 1년 이내의 주기로 곡선을 그리며 추세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을 말함.
- 시간의 경과(흐름)에 따라 상하로 반복되는 변동으로 추세선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 순환변동임.
- 경기변동곡선(business cycle curve)은 불황과 경기회복, 호황과 경기후퇴로 인하여 수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순환변동을 나타내는 좋은 예임.

예 : 경기변동 등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순환변동(cyclical variation)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순환변동(cyclical variation)

```
# 4년 주기  
# -- Cycle variation  
#cycle_factor = 10*np.sin(np.linspace(0, 3.14*2, 48))
```

```
plt.figure(figsize=[10, 6])  
df.cycle.plot()  
plt.title('Cycle Factor', fontsize=16)  
plt.ylim(-12, 55)  
plt.show()
```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계절변동(seasonal variation)

- 시계열자료에서 보통 계절적 영향과 사회적 관습에 따라 1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을 계절변동이라 하고, 보통계절에 따라 순환하며 변동하는 특성을 지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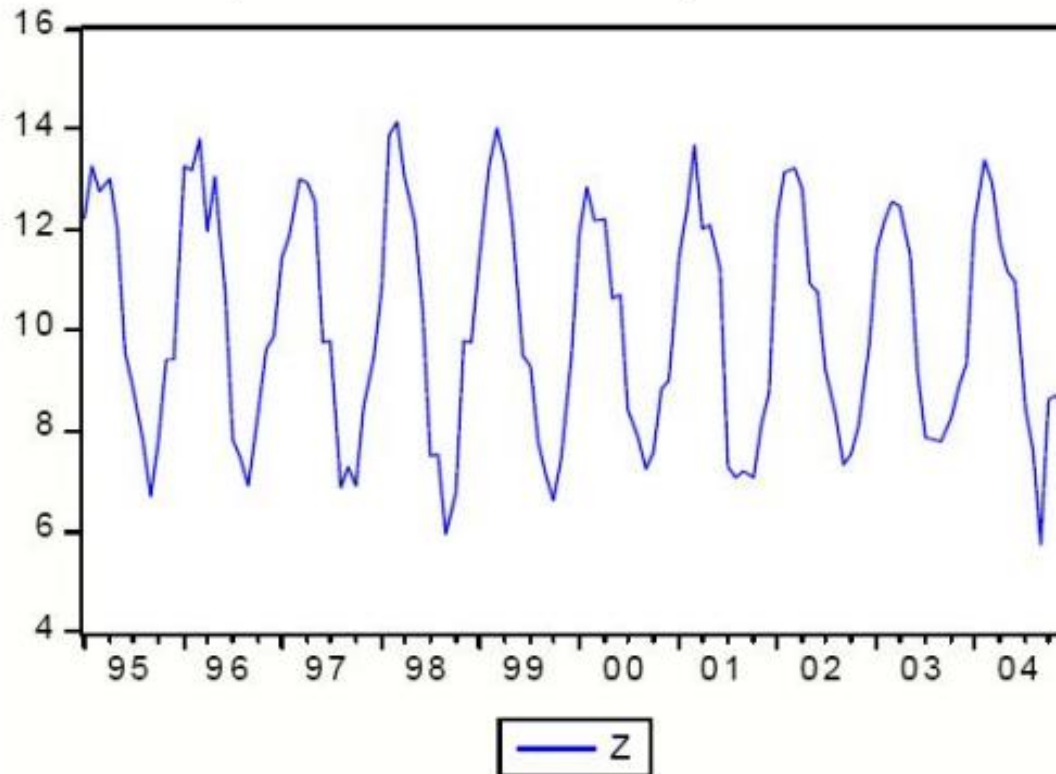
예 : 설, 추석 등 명절요인 등

- 그런데 계절변동이 순환변동과 다른 점은 순환주기가 짧다는 점임.
-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관련 시계열들은 추세와 계절요인을 동시에 포함함.
-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 백화점의 판매액, 해외여행자수, 청량음료, 전력소비량 등과 같이 계절상품 판매량 자료들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임.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계절변동(seasonal variation)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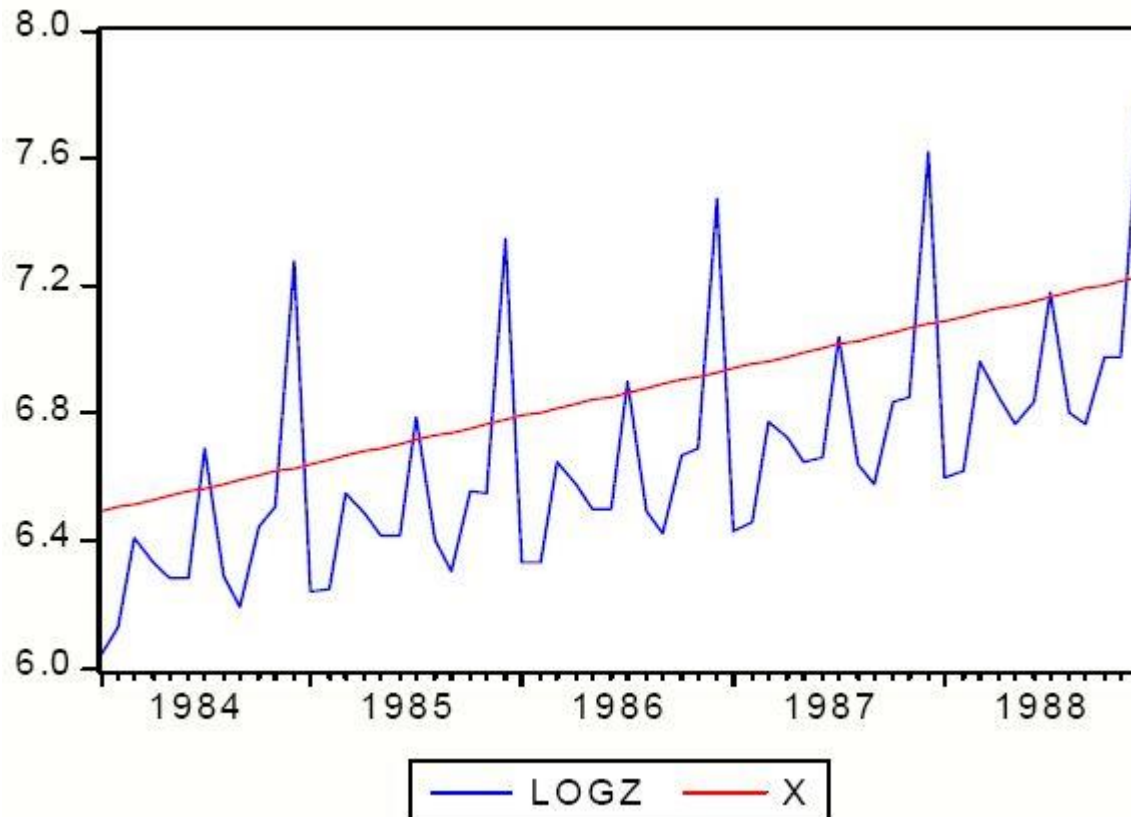
## 순환변동(cyclical variation)

```
# -- Seasonal factor  
#seasonal_factor = 7*np.sin(np.linspace(0, 3.14*8, 48))
```

```
plt.figure(figsize=[10, 6])  
df.seasonal.plot()  
plt.title('Seasonal Factor', fontsize=16)  
plt.ylim(-12, 55)  
plt.show(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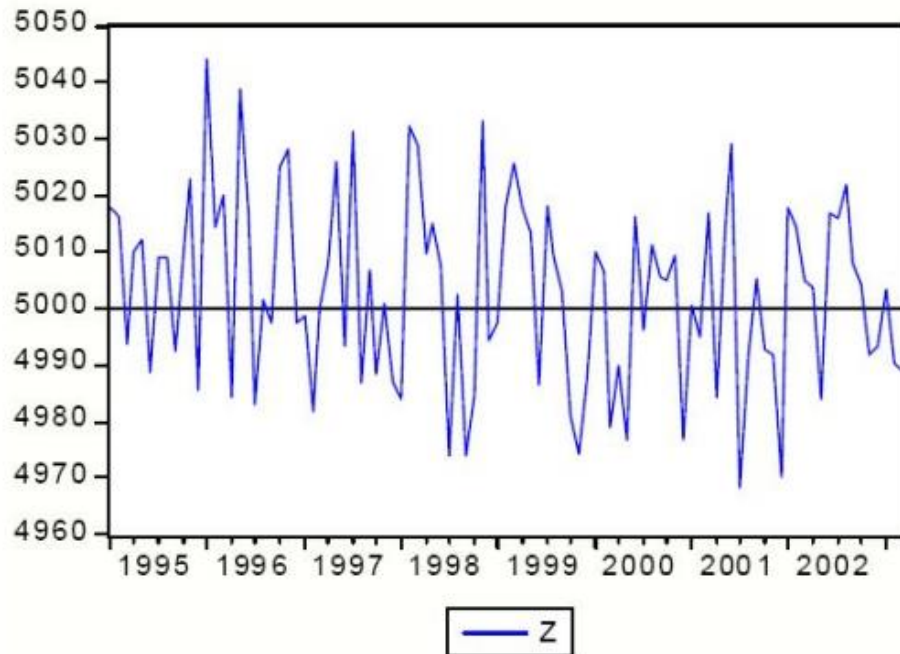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추세와 계절변동요인을 갖는 시계열



# 시계열 분석 개요(the nature of time series analysis)

## 불규칙변동(irregular variation or random variation)



시계열자료에서 어떤 규칙성이 없어 예측 불가능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을 말한다. 즉, 시계열 자료에서 위 세 가지 변동 요인을 조정한 후에 나타나는 변동이 불규칙 변동이다. 시계열 자료로 예측을 할 때, 불규칙 변동이 많이 존재하면 신뢰성이 있는 예측을 하기 어렵다.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- 데이터 셋을 모델링 하기 전에 기술통계와 시각화로 데이터 셋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듯이, 시계열(time-series)에서도 복잡한 모델 구성에 앞서 수치나 시각화로 시계열을 기술하는 일이 분석작업의 출발점이다.
- 평활화(smoothing)는 분석작업 중 하나로, 일반적인 시계열의 복잡한 추세(trend)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.
- 시계열은 전형적으로, 명백한 불규칙(or 오차)성분을 포함한다.
- 시계열 자료의 특정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, 이같은 급격한 파동을 줄이는 평활화(smoothing) 곡선 플롯(curve-plot)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평활법이다. 대표적인 평활법은 이동평균법과 지수평활법이 있다.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■ 이동평균법(moving average method)

- 시계열을 평활화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동평균(moving average)을 사용하는 방법이다.
- 시계열 자료의 특정시점(a time point) 관측치와 이 관측치의 이전과 이후 관측치의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'중심이동평균'(centered moving average)라고 한다. 쉽게 말해, 한 시점 앞 뒤 관측치를 평균내는 방법이다. 따라서 이동평균법을 하면 전체 관측치의 개수가 줄어 든다.
- 예를 들어  $n=3$ 이면 3기간 단순이동평균(M3),  $n=5$ 이면 5기간 단순이동평균(M5),  $n=10$ 이면 10기간 단순이동 평균(M10)이다.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■ 이동평균법(moving average method)

- 이동평균법을 이용할 때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동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거자료의 적정개수, 즉  $n$ 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다.
- 일반적으로 시계열자료에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 있거나 불규칙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 $n$ 의 개수를 사용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$n$ 의 개수를 크게 한다.

$$M_t = \frac{Z_t + Z_{t-1} + \dots + Z_{t-n+1}}{n}$$

최근  $n$ 개의 관측값  $Z_t, Z_{t-1}, \dots, Z_{t-n+1}$ 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동평균이다.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Simple Moving Average (SM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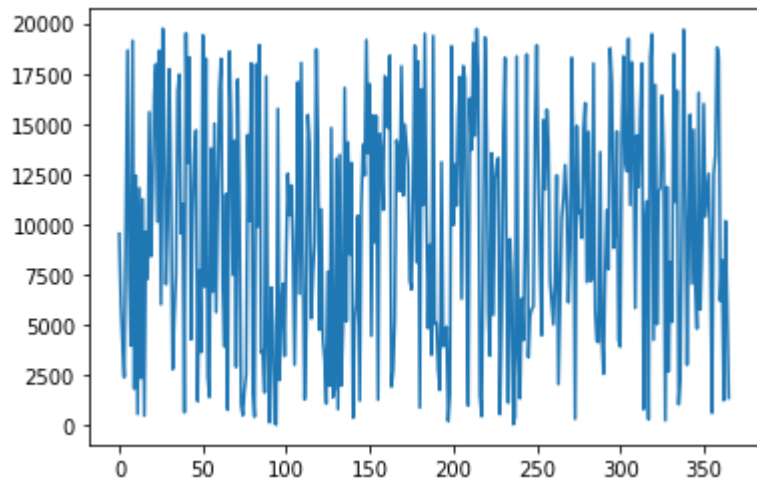
- 단순 이동 평균은 가장 일반적인 평균 유형이다.
- **SMA**에서는 최근 데이터 포인트의 합계를 수행하고 기간별로 나눈다.
- 슬라이딩 너비의 값이 클수록 데이터가 더 평활해지지만, 값이 크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.
- SMA를 계산하기 위해 pandas의 `Series.rolling()` 메서드를 사용한다.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```
import pandas as pd  
  
df['brandA'].plot()
```

	Date	brandA	brandB
0	01-01-2020	9525	15644
1	02-01-2020	6021	13394
2	03-01-2020	4035	9492
3	04-01-2020	2388	15999
4	05-01-2020	10299	2170

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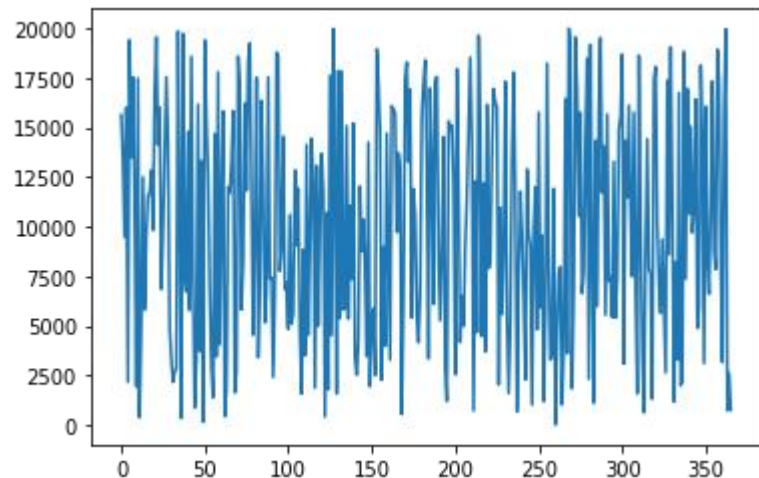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```
import pandas as pd  
  
df['brandB'].plot()
```

	Date	brandA	brandB
0	01-01-2020	9525	15644
1	02-01-2020	6021	13394
2	03-01-2020	4035	9492
3	04-01-2020	2388	15999
4	05-01-2020	10299	2170

20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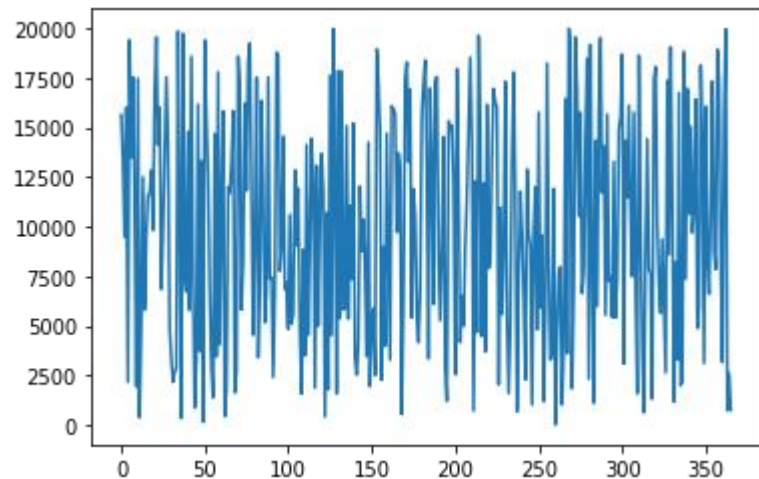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```
import pandas as pd  
  
df['brandB'].plot()
```

	Date	brandA	brandB
0	01-01-2020	9525	15644
1	02-01-2020	6021	13394
2	03-01-2020	4035	9492
3	04-01-2020	2388	15999
4	05-01-2020	10299	217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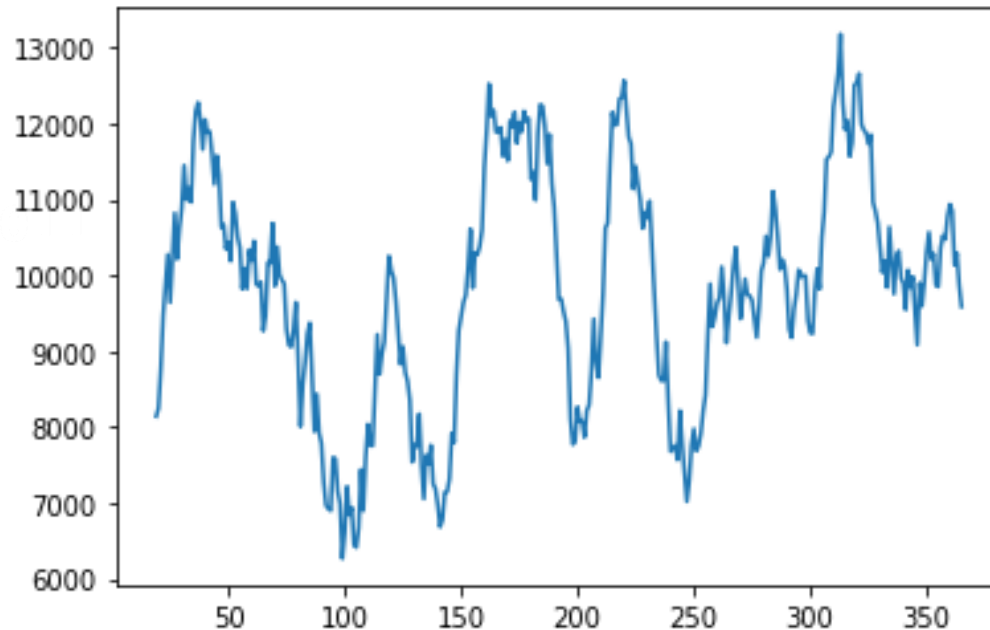
2020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```
import pandas as pd
```

```
df['brandA'].rolling(window =20).mean().plot(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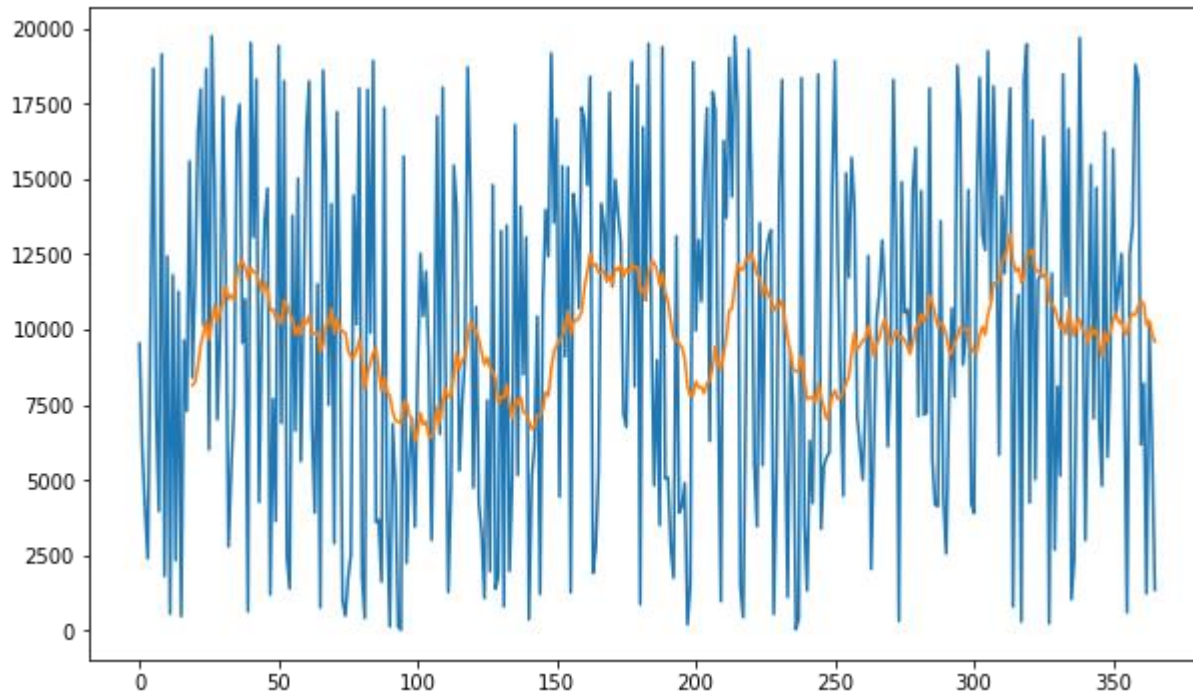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```
import pandas as pd
```

```
df['brandA'].plot(figsize=(10,6))
```

```
df['brandA'].rolling(window =20).mean().plot()
```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애플 주가 분석

다음과 같이 pandas 메소드를 쓰면 일요일이 주단위로 8개 출력된다.

```
import pandas as pd
import numpy as np
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
from datetime import datetime
%matplotlib inline

# 2020년 8월 부터 일요일 8개를 조회
# start : 시작일, periods : 생성할 날짜의 개수, freq : 생성할 날짜의 주기
pd.date_range(start="2020-08", periods=8, freq="W")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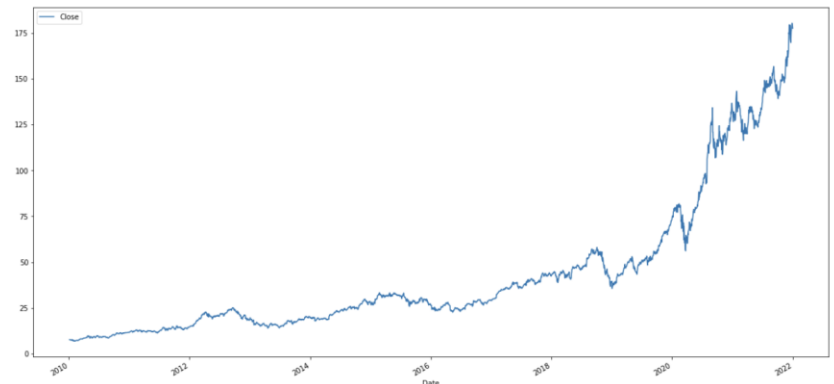
데이터 프레임 컬럼으로 사용했을 때와 3주치 평균 컬럼을 추가

```
df = pd.DataFrame({  
    "week":pd.date_range(start="2020-08", periods=8, freq="W"),  
    "sales":[39,44,40,45,38,43,39,np.nan],  
    "3MA":[0]*8  
})  
# 0~2주차 평균을 3주차에 shift해서 적용  
df["3MA"] = df[["sales"]].rolling(3).mean().shift(1)  
df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Simple Moving Average를 이용한 월별 애플사 주식가격 예측

```
import FinanceDataReader as fdr  
# 2010년~현재까지의 애플 주가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기  
df_apple = fdr.DataReader('AAPL', start = '2010')  
  
# 가장 마지막(최신)의 10일치 주가 출력  
df_apple.tail(10)  
  
df_apple[['Close']].plot(figsize=(20,10))  
df_apple['Close_7Days_Mean'] = df_apple['Close'].rolling(7).mean()  
plt.title('Close Price for Apple')
```

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2010~2022년까지 애플의 종가 그래프이다. 7일전 평균값을 shift 하여 이동평균 그래프를 추가  
7일평균값으로 부드러워진 곡선 그래프를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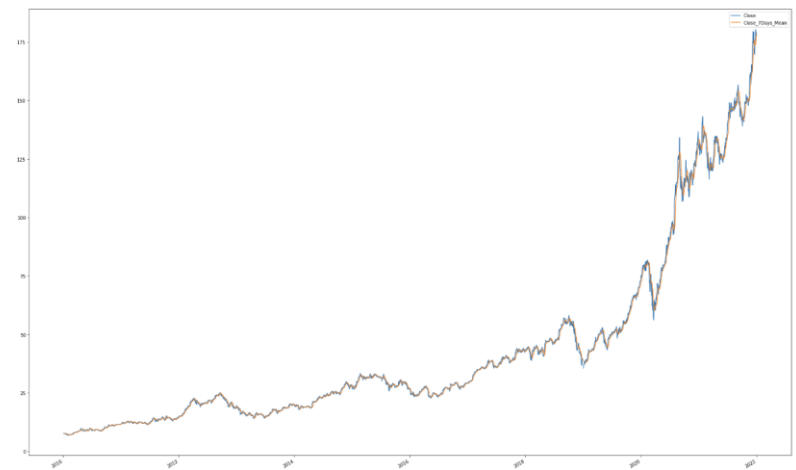
```
last_day = datetime(2022, 1, 2)
```

```
df_apple.loc[last_day, "Close"] = np.nan
```

```
df_apple['Close_7Days_Mean'] = df_apple['Close'].rolling(7).mean().shift(1)
```

```
df_apple[['Close', 'Close_7Days_Mean']].plot(figsize=(30,20))
```

# 7일전 평균값 그래프 + 종가 그래프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pandas dataframe에는 resample이라는 데이터프레임의 시계열 인덱스 기준으로 샘플링을 편하게 해주는 메소드가 있다. 아래와 같이 하면 월단위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준다.

```
# 월단위로 주식 가격의 평균을 샘플링
df_apple_monthly = df_apple.resample(rule='M').mean()
# 마지막 컬럼(Close_7Days_Mean) 제외
df_apple_monthly = df_apple_monthly.iloc[:, :-1]
# 월별 주가(종가)를 시각화
df_apple_monthly[['Close']].plot(figsize=(20,10))
plt.title('Monthly Mean Close Price for Apple')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pandas dataframe에는 resample이라는 데이터프레임의 시계열 인덱스 기준으로 샘플링을 편하게 해주는 메소드가 있다. 아래와 같이 하면 월단위로 시계열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 준다.

```
# 월단위로 주식 가격의 평균을 샘플링
```

```
df_apple_monthly = df_apple.resample(rule='M').mean(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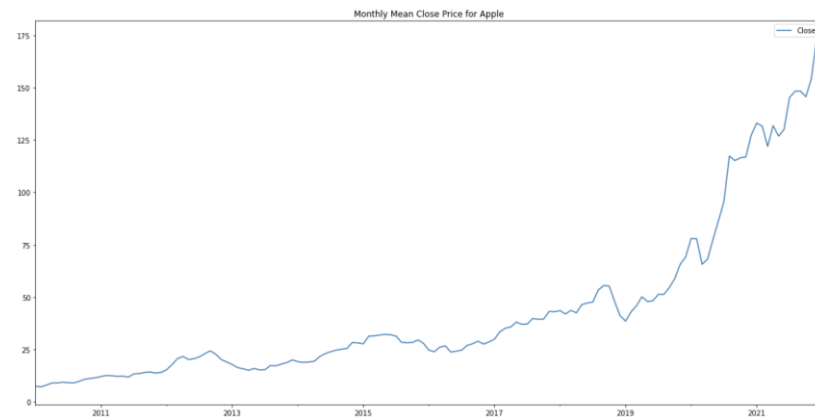
```
# 마지막 컬럼(Close_7Days_Mean) 제외
```

```
df_apple_monthly = df_apple_monthly.iloc[:, :-1]
```

```
# 월별 주가(종가)를 시각화
```

```
df_apple_monthly[['Close']].plot(figsize=(20,10))
```

```
plt.title('Monthly Mean Close Price for Apple')
```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월단위 평균값을 또 3개월치씩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코드

```
df_apple_monthly[['Close_3Month_Mean']] =  
df_apple_monthly[['Close']].rolling(3).mean().shift(1)  
df_apple_monthly[['Close', 'Close_3Month_Mean']].plot(figsize=(15,20))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Exponential Moving Average (EMA)

- EMA는 새로운 데이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근 데이터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.
- EMA의 주요 아이디어는 이전 데이터보다 최근 데이터를 더 선호하는 것이다.
- 데이터가 오래될수록 데이터에 할당된 가중치가 줄어듭니다. 이 때문에 EMA는 모든 값에 동일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SMA에 비해 추세 변화에 더 민감하다.
- SMA를 계산하기 위해 pandas의 `pandas.Series.ewm()` 메서드를 사용한다.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Exponential Moving Average (EMA)

`df.ewm(com=None, span=None, halflife=None, alpha=None, min_periods=0, adjust=True, ignore_na=False, axis=0, times=None, method='single')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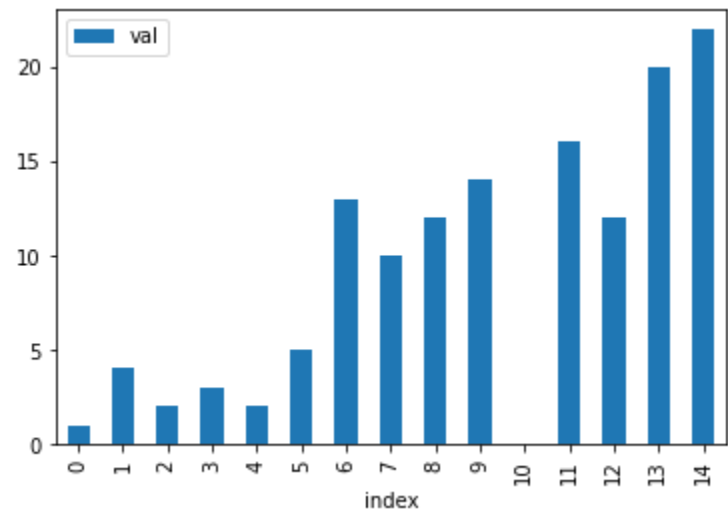
```
import pandas as pd
```

```
data = {'val':[1,4,2,3,2,5,13,10,12,14,np.NaN,16,12,20,22]}
```

```
df = pd.DataFrame(data).reset_index()
```

```
# df['val'].plot.bar(rot=0, subplots=True)
```

```
df.plot(kind='bar',x='index',y='val')
```

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Exponential Moving Average (EMA)

```
df.ewm(com=None, span=None, halflife=None, alpha=None, min_periods=0, adjust=True, ignore_na=False, axis=0, times=None, method='single')
```

```
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
```

```
df2 = df.assign(ewm=df['val'].ewm(alpha=0.3).mean()) # val열에 ewm 메서드적용 후 df에 추가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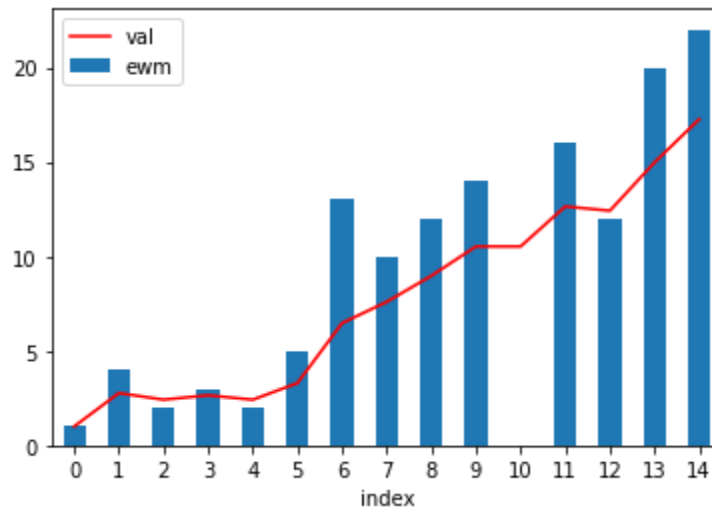
```
ax = df.plot(kind='bar',x='index',y='val') # ax에 df의 bar chart 생성
```

```
ax2= df2.plot(kind='line',x='index', y='ewm', color='red', ax=ax) # ax2에 df2의 line chart 생성 후 ax에 추가
```

```
plt.show() # 그래프 출력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Exponential Moving Average (EMA)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- myEWMA는 지수이동평균값을 `df.ewm(span=3).mean()`과 같이 계산해주도록 정의한 메소드

```
import pandas as pd
```

```
import numpy as np
```

```
df = pd.DataFrame({  
    "week":pd.date_range(start="2020-08", periods=8, freq="W"),  
    "sales":[39,44,40,45,38,43,39,np.nan],  
    "3EMA":[0]*8  
})
```

```
#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할 함수
```

```
# data: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할 데이터
```

```
# span: 지수 이동 평균의 거리 (강의 자료에서는 3주마다의 지수 이동 평균이므로 3)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```
def myEWMA(data, span):  
    # 지수 이동 평균을 계산해서 저장할 리스트  
    ewma=[0]*len(data)  
    # 지수 이동 평균의 분자  
    molecule=0  
    # 지수 이동 평균의 분모  
    denominator=0  
    # 값에 곱해지는 가중치  
    alpha = 2.0 / (1.0 + span)  
    for i in range(len(data)):  
        # 분자 계산  $data + (1-\alpha) \times \text{이전 데이터}$   
        molecule = (data[i] + (1.0-alpha)*molecule)  
        # 분모 계산  $(1-\alpha)^i$   
        denominator+=(1-alpha)**i  
        print("index:",i)  
        print("molecule:",molecule)  
        print("denominator:",denominator)  
        # 지수 이동 평균 계산  
        ewma[i] = molecule/denominator  
        print("ewma",ewma[i])  
        print(" "*100)  
    return ewma
```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Apple 주식을 SMA 방식과 같이 분석

- 전에 코드를 활용하여 본다.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Cumulative Moving Average (CMA)

- 누적 이동 평균은 SMA와 같이 현재 시간 't'까지의 모든 데이터의 평균이며 가중치가 없는 평균이다.
- 모든 값에 동일한 가중치가 할당된다.
- 창 크기가 일정한 SMA와 달리 CMA에서는 창 폭이 지속 시간이 길수록 커진다.
- CMA를 계산하기 위해 pandas의 `Series.expanding()` 메서드를 사용한다.



# 평활화 기법(Smoothing Methods)

## ■ 이동평균법(moving average method)

- 이동평균법을 이용할 때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동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거자료의 적정개수, 즉  $n$ 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다.
- 일반적으로 시계열자료에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 있거나 불규칙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 $n$ 의 개수를 사용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 $n$ 의 개수를 크게 한다.

$$M_t = \frac{Z_t + Z_{t-1} + \dots + Z_{t-n+1}}{n}$$

최근  $n$ 개의 관측값  $Z_t, Z_{t-1}, \dots, Z_{t-n+1}$ 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동평균이다.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시차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

시차를 적용한 나일강 유량 시계열 데이터. 주어진 시차만큼 관측값이 뒤의 연도로 이동한다.

시차	1868	1869	1870	1871	1872	1873	1874	1875	1876	...
0				1120	1160	963	1210	1160	1160	...
1			1120	1160	963	1210	1160	1160	813	...
2		1120	1160	963	1210	1160	1160	813	1230	...
3	1120	1160	963	1210	1160	1160	813	1230	1370	...

- 자기상관은 시차(lag)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
- 시차를 적용한다는 것은 특정 시차만큼 관측값을 뒤로(즉 과거의 시점으로)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자기상관함수(ACF; AutoCorrelation Function)

### 자기상관함수

- 자기상관은 다른 시점의 관측값 간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므로 이는 시차를 적용한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
- 자기상관  $AC_k$ 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( $y_t$ )와  $k$  시차가 고려된, 즉  $k$  기간 뒤로 이동한 시계열 데이터( $y_{t-k}$ ) 간의 상관관계로 정의
  - 예를 들어,  $AC_1$ 은 시차0 시계열 데이터와 시차1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
  - $AC_0$ 는 동일한 시계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이므로 항상 1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자기상관함수(계속)

- 시차에 따른 일련의 자기상관  $\{AC_1, AC_2, \dots, AC_k\}$ 를 자기상관함수 (autocorrelation function, ACF)라고 함
- ACF는 시차에 따른 관측값 간의 연관 정도를 보여주며, 시차가 커질수록 ACF는 점차 0에 가까워지게 됨
- ACF는 시계열의 정상성을 평가할 때 유용
  - 정상 시계열의 ACF는 상대적으로 빨리 0으로 접근함
  - 비정상 시계열의 ACF는 천천히 감소하며 종종 큰 양의 값을 가짐

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자기상관함수(계속)

- 시차에 따른 일련의 자기상관  $\{AC_1, AC_2, \dots, AC_k\}$ 를 자기상관함수 (autocorrelation function, ACF)라고 함
- ACF는 시차에 따른 관측값 간의 연관 정도를 보여주며, 시차가 커질수록 ACF는 점차 0에 가까워지게 됨
- ACF는 시계열의 정상성을 평가할 때 유용
  - 정상 시계열의 ACF는 상대적으로 빨리 0으로 접근함
  - 비정상 시계열의 ACF는 천천히 감소하며 종종 큰 양의 값을 가짐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편자기상관함수

- 편자기상관(partial autocorrelation)은 시차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 간의 순수한 상호 연관성을 나타냄
- 편자기상관  $PAC_k$ 는 원래의 시계열 데이터( $y_t$ )와 시차  $k$  시계열 데이터( $y_{t-k}$ )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로서 두 시점 사이에 포함된 모든 시계열 데이터( $y_{t-1}, y_{t-2}, \dots, y_{t-k+1}$ )의 영향은 제거됨
- 시차에 따른 일련의 편자기상관  $\{PAC_1, PAC_2, \dots, PAC_k\}$ 를 편자기상관함수(partial autocorrelation function, PACF)라고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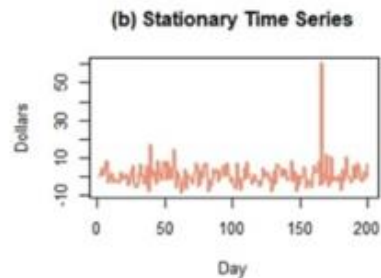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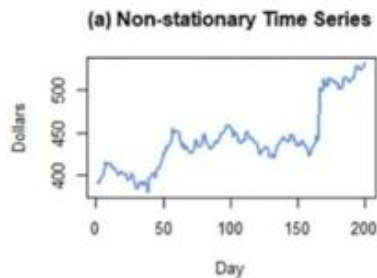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ACF도표와 PACF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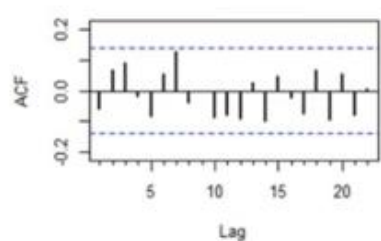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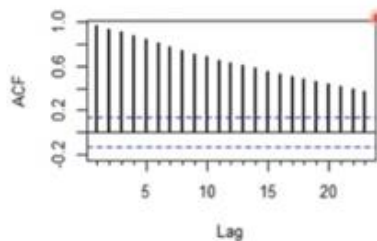
- ACF도표(ACF plot)와 PACF도표(PACF plot)는 ACF와 PACF를 그래프로 시각화
- 활용
  -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평가
  - ARIMA모델의 패러미터 결정 및 모델의 적합도 평가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ACF도표를 이용한 정상성 평가



- (a)의 비정상 시계열에 대응되는 ACF도표는 자기상관이 크고 양수이며 천천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줌
- (b)의 정상 시계열에 대응되는 ACF도표는 모든 시차에서 0에 근접한 자기상관을 보여줌

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정상 시계열로의 변환

-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로그 변환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시계열로 변환
- 추세나 계절적 요인이 관찰되면 차분(differencing, 시계열  $y_t$ 의 각 관측값을  $y_t - y_{t-1}$ 로 대체) 과정을 통해 전 기간에 걸쳐 평균이 일정한 정상 시계열로 변환
-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 추세와 계절적 요인 또한 존재하면 로그 변환과 차분 과정을 모두 적용하여 정상 시계열로 변환

# 자기상관과 부분 자기상관

## 정상 시계열로의 변환

-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로그 변환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산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시계열로 변환
- 추세나 계절적 요인이 관찰되면 차분(differencing, 시계열  $y_t$ 의 각 관측값을  $y_t - y_{t-1}$ 로 대체) 과정을 통해 전 기간에 걸쳐 평균이 일정한 정상 시계열로 변환
-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고 추세와 계절적 요인 또한 존재하면 로그 변환과 차분 과정을 모두 적용하여 정상 시계열로 변환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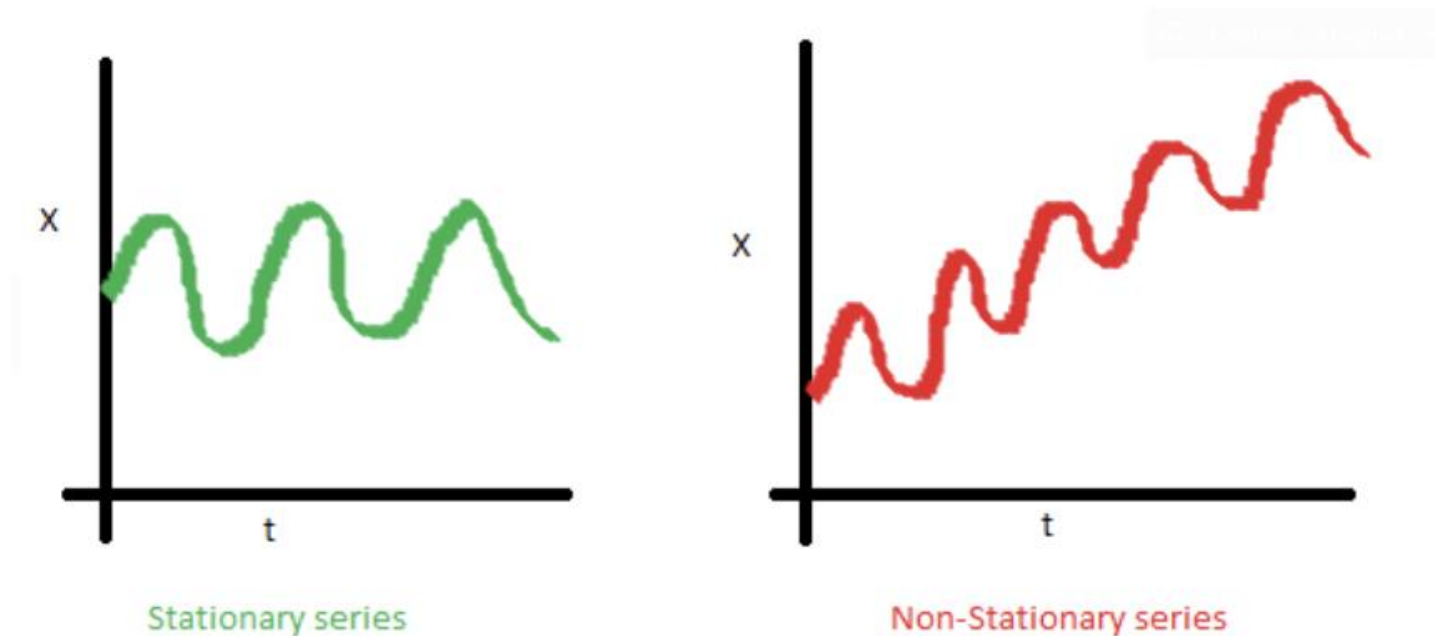
## ■ 정상성

- 정태성이라고도 하며, 일정하여 늘 한결같은 성질을 뜻한다.
- 시계열에서 정상성이 있다는 것은 추세나 동향이 없는 상태로, 시계열의 평균이 시간 축에 평행하다는 의미다.
- 시계형 자료가 시계열 모형으로 적합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. 즉, 추세와 동향이 있는 상태로는 모형을 만들 수 없다.(다루기가 어렵다)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정상성



비정상성 시계열은 정상시계열로 변환해야 하며, 차분(differencing)을 이용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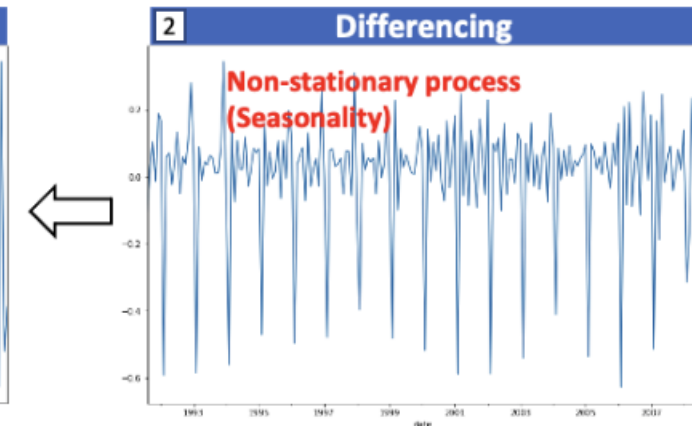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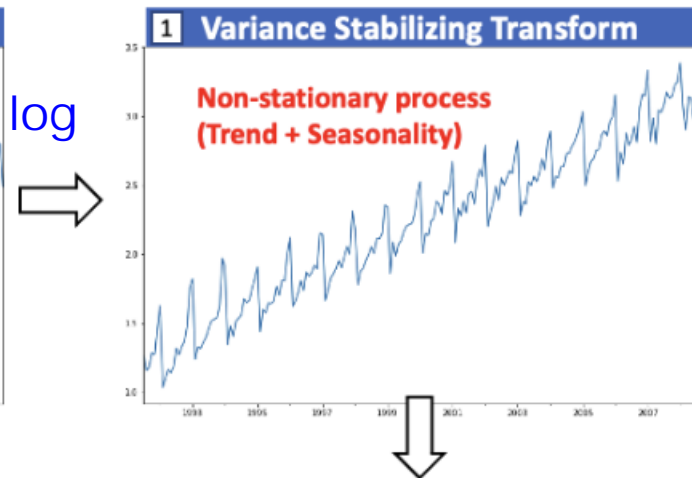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정상성



### 비정상확률과정을 정상확률과정으로 변환하기

(Transforming nonstationary process to stationary process)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- 차분은 현시점 자료에서 전 시점 자료를 빼는 것을 말한다.
- 일반차분(regular difference)는 바로 전 시점의 자료를 빼는 것이고, 계절차분(seasonal difference)는 여러 시점 전의 자료를 빼는 것이다.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```
import numpy as np
import pandas as pd
import matplotlib.pyplot as plt
## getting drug sales dataset
file_path = 'https://raw.githubusercontent.com/selva86/datasets/master/a10.csv'
df = pd.read_csv(file_path, parse_dates=['date'], index_col='date')
df.head(12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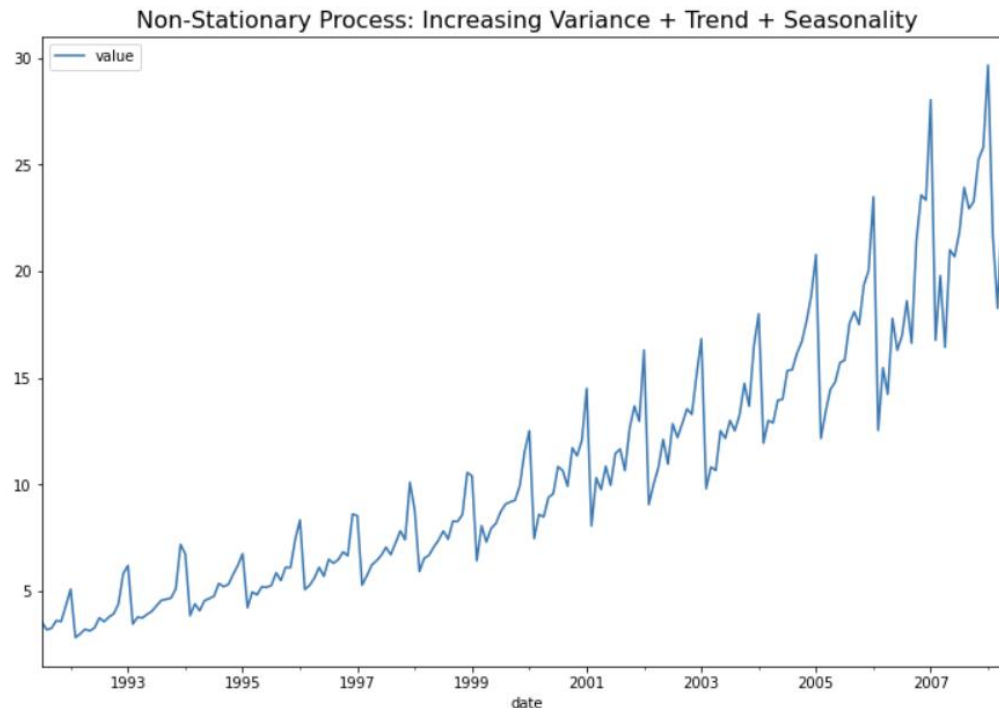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```
df.plot(figsize=[12, 8])
```

```
plt.title('Non-Stationary Process: Increasing Variance + Trend + Seasonality',  
fontsize=16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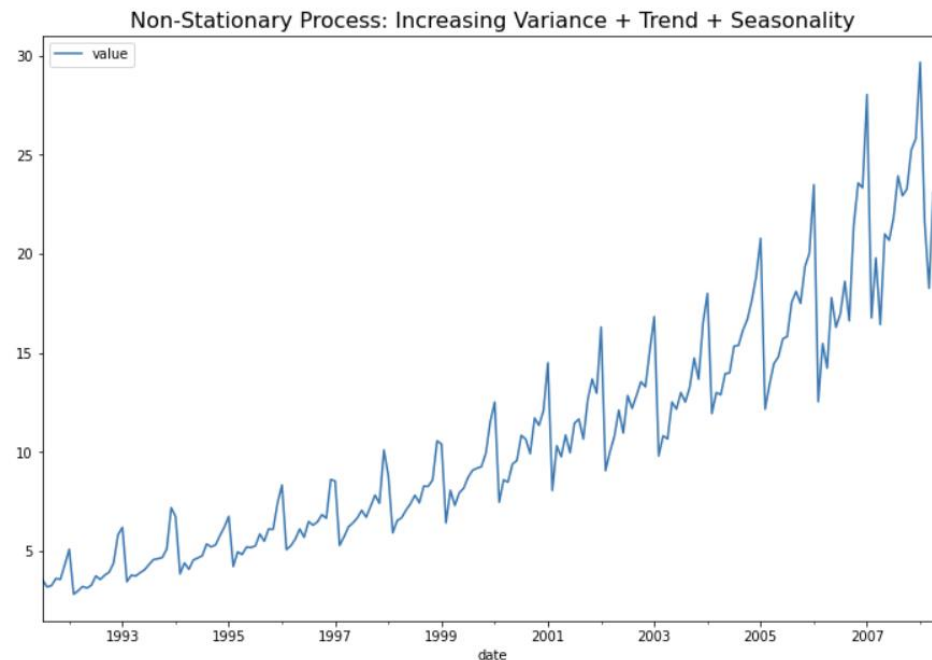
```
plt.show()
```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위의 시계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, (a) 분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(분산이 고정 아님), (b) 추세(trend)가 있으며, (c) 1년 주기의 계절성(seasonality)이 있으므로, 비정상확률과정(non-stationary process)이다.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## Variance Stabilizing Transformation (VST) by Taking Logarithm

```
df_vst = np.log(df.value)
```

```
df_vst.head()
```

```
Out[24]:
```

date	value
1991-07-01	1.260332
1991-08-01	1.157161
1991-09-01	1.179338
1991-10-01	1.283986
1991-11-01	1.271408

Name: value, dtype: float64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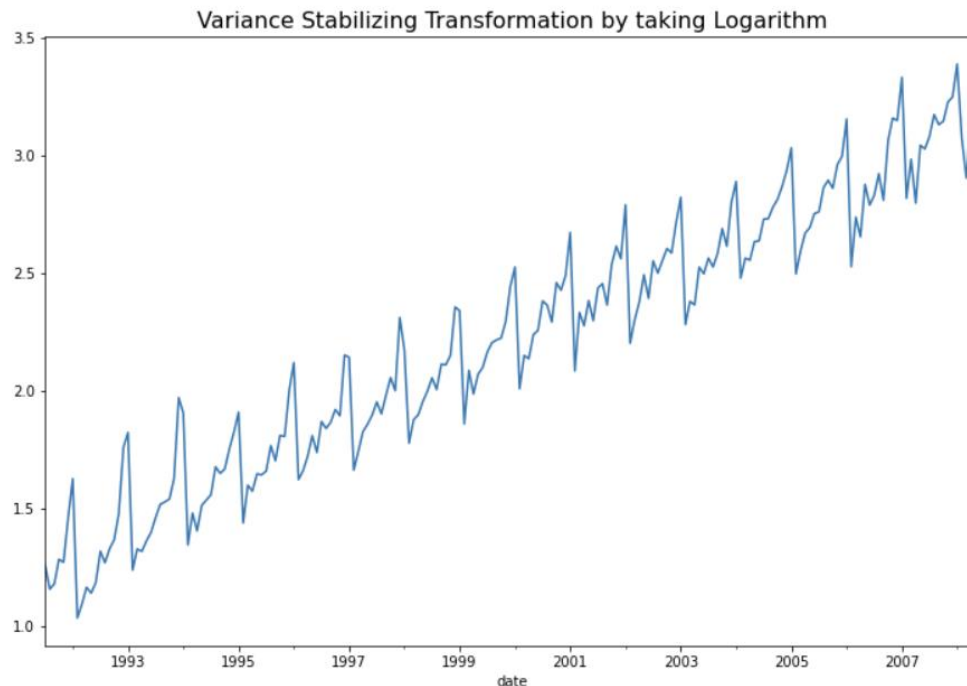
## ■ 차분

## plotting

```
df_vst.plot(figsize=(12, 8))
```

```
plt.title("Variance Stabilizing Transformation by taking Logarithm", fontsize=16)
```

```
plt.show()
```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추세가 있는 경우 차분을 통한 추세 제거 (de-trend by differencing)

차분(differencing)은 현재의 시계열 값에서 시차  $t$  만큼의 이전 값을 빼 주는 것이다.

1차 차분 =  $\Delta_1 Z(t) = Z(t) - Z(t-1)$

2차 차분 =  $\Delta_2 Z(t) = Z(t) - Z(t-1) - (Z(t-1) - Z(t-2)) = Z(t) - 2Z(t-1) + Z(t-2)$

Python의 `diff()` 메소드를 사용해서 차분을 해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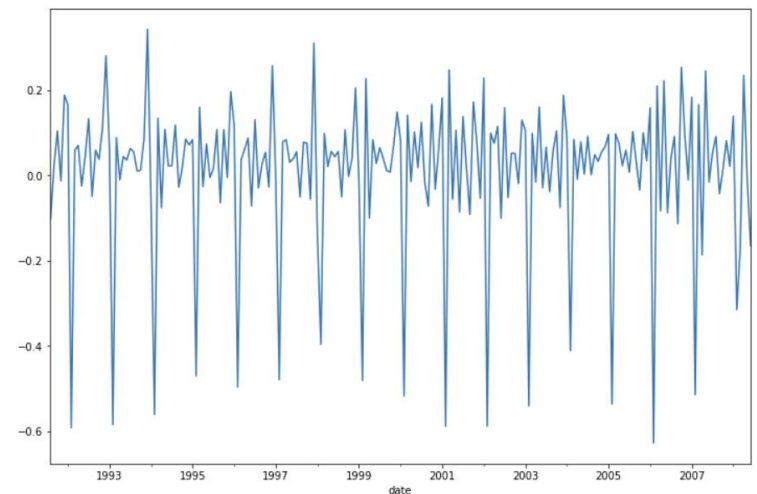
이때 차분의 차수 만큼 결측값이 생기는 데요, `dropna()` 메소드를 사용해서 결측값은 제거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추세가 있는 경우 차분을 통한 추세 제거 (de-trend by differencing)

```
## De-trend by Differencing
df_vst_diff1 = df_vst.diff(1).dropna()
df_vst_diff1
plt.figure(figsize=(12,8))
df_vst_diff1.plot()
# plt.title("De-trend by 1st order Differencing", fontsize=16)
# plt.show()
```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- 계절성이 있는 경우 계절 차분을 통한 계절성 제거 (de-seasonality by seasonal differencing)
- 아직 남아있는 계절성(seasonality)을 계절 차분(seasonal differencing)을 사용해서 제거.
- 1년 12개월 주기의 계절성을 띠고 있으므로 diff(12) 함수로 계절 차분을 실시하고, 12개의 결측값이 생기는데요 dropna() 로 결측값은 제거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## Stationary Process: De-seasonality by Seasonal Differencing

```
df_vst_diff1_diff12 = df_vst_diff1.diff(12).dropna(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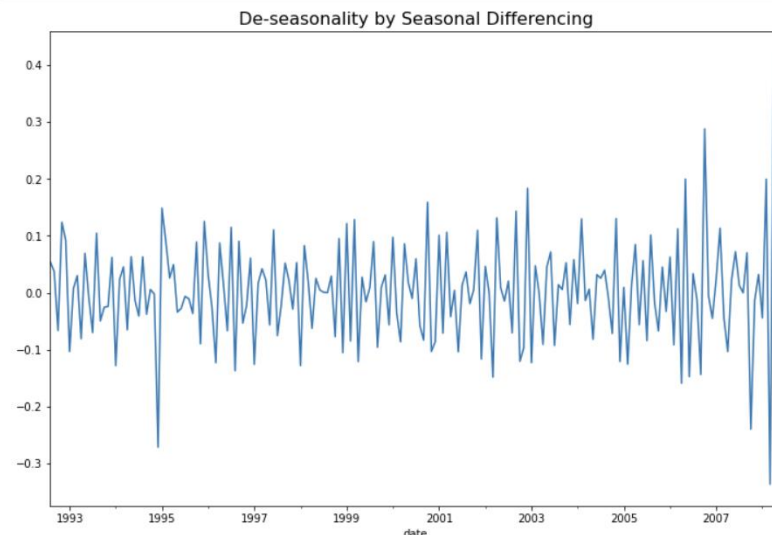
## plotting

```
plt.figure(figsize=(12,8))
```

```
df_vst_diff1_diff12.plot(
```

```
plt.title("De-seasonality by Seasonal Differencing", fontsize=16)
```

```
plt.show())
```



# 정상성(stationarity)과 차분(differencing)

## ■ 차분

비정상 시계열(non-stationary process)이었던 원래 데이터

(1) log transformation을 통한 분산 안정화

(2) (2) 차분(differencing)을 통한 추세 제거

(3) (3) 계절 차분(seasonal differencing)을 통한 계절성 제거를 모두 마쳐서 정상 시계열(stationary process)로 변환



# 시계열 모형

## ■ 시계열 모형 종류

(1)  $AR(p)$  - 자기 회귀 모형

(2)  $MA(q)$  - 이동평균 모형

(3)  $ARMA(p,q)$

(4)  $ARIMA(p,d,q)$  -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

: 차수의 개수( $d$ )는 거의 2를 넘지 않는다.

(5)  $SARIMA$ (Seasonal  $ARIMA$ ) - 계절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

# 시계열 모형

## ■ 시계열 모형 종류

(1)  $AR(p)$  - 자기 회귀 모형

(2)  $MA(q)$  - 이동평균 모형

(3)  $ARMA(p,q)$

(4)  $ARIMA(p,d,q)$  -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

: 차수의 개수( $d$ )는 거의 2를 넘지 않는다.

(5)  $SARIMA$ (Seasonal  $ARIMA$ ) - 계절 자기회귀이동평균 모형

# 시계열 모형

## ■ AR – 자기회기 모형

- **AR(Autoregressive) 모델**은 자기회귀(Autoregressive) 모델로 자기상관성을 시계열 모델로 구성한 것이다.
- 예측하고 싶은 특정 변수의 과거 자신의 데이터와 선형 결합을 통해 특정 시점 이후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.
- 이름 그대로 이전 자신의 데이터가 이후 자신의 미래 관측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반으로 나온 모델이다.
- **AR(1)**에 적용하기 위해선  $-1 < \phi < 1$  조건이 필요하다.

# 시계열 모형

## ■ AR – 자기회기 모형

- **AR(Autoregressive) 모델**은 자기회귀(Autoregressive) 모델로 자기상관성을 시계열 모델로 구성한 것이다.
- 예측하고 싶은 특정 변수의 과거 자신의 데이터와 선형 결합을 통해 특정 시점 이후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.
- 이름 그대로 이전 자신의 데이터가 이후 자신의 미래 관측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반으로 나온 모델이다.
- **AR(1)**에 적용하기 위해선  $-1 < \phi < 1$  조건이 필요하다.

# 시계열 모형

## ■ AR – 자기회기 모형

ArmaProcess(ar = [1,-phi\_1, -phi\_2, ..., -phi\_p], ma = [1])로 생성

# ArmaProcess로 모형 생성하고 nobs 만큼 샘플 생성

```
def gen_arma_samples (ar,ma,nobs):
```

```
    arma_model = ArmaProcess(ar=ar, ma=ma) # 모형 정의
```

```
    arma_samples = arma_model.generate_sample(nobs) # 샘플 생성
```

```
    return arma_samples
```

# drift가 있는 모형은 ArmaProcess에서 처리가 안 되어서 수동으로 정의해줘야 함

```
def gen_random_walk_w_drift(nobs,drift):
```

```
    init = np.random.normal(size=1, loc = 0)
```

```
    e = np.random.normal(size=nobs, scale =1)
```

```
    y = np.zeros(nobs)
```

```
    y[0] = init
```

```
    for t in (1,nobs):
```

```
        y[t] = drift + 1 * y[t-1] + e[t]
```

```
    return y
```

# 시계열 모형

## ■ AR – 자기회기 모형

그백색 잡음 모형 (white\_noise), 임의 보행 모형 (random\_walk),  
표류가 있는 임의 보행 모형 (random\_walk\_w\_drift), 정상성을 만족하는  $\phi_1=0.9$ 인  
AR(1) 모형 (stationary\_ar\_1)을 각각 250개씩 샘플을 생성하여 그림

```
np.random.seed(12345)
```

```
white_noise= gen_arma_samples(ar = [1], ma = [1], nobs = 250)
# y_t = epsilon_t
random_walk  = gen_arma_samples(ar = [1,-1], ma = [1], nobs = 250)
# (1 - L)y_t = epsilon_t
random_walk_w_drift = gen_random_walk_w_drift(250, 2)
# y_t = 2 + y_{t-1} + epsilon_t
stationary_ar_1      = gen_arma_samples(ar = [1,-0.9], ma = [1],nobs=250)
# (1 - 0.9L) y_t = epsilon_t

fig,ax = plt.subplots(1,4)
ax[0].plot(white_noise)
ax[0].set title("White Noise")
```



# 시계열 모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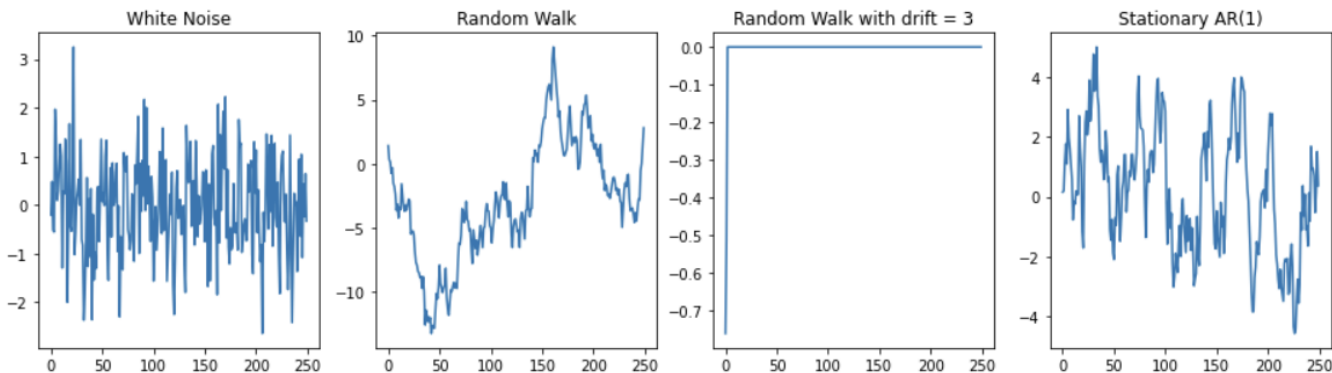
## ■ AR – 자기회기 모형

```
ax[1].plot(random_walk)  
ax[1].set_title("Random Walk")
```

```
ax[2].plot(random_walk_w_drift)  
ax[2].set_title("Random Walk with drift = 3")
```

```
ax[3].plot(stationary_ar_1)  
ax[3].set_title("Stationary AR(1)")
```

```
fig.set_size_inches(16,4)
```



# 시계열 모형

## MA (q) 모형 생성하기

`ArmaProcess(ar = [1], ma = [1, theta_1, theta_2, ..., theta_q])`로 생성

```
np.random.seed(12345)
```

```
ma_1 = gen_arma_samples(ar = [1], ma = [1,1], nobs = 250)    # y_t = (1+L) epsilon_t  
ma_2 = gen_arma_samples(ar = [1], ma = [1,0.5], nobs = 250)  # y_t = (1+0.5L)epsilon_t  
ma_3 = gen_arma_samples(ar = [1], ma = [1,-2], nobs = 250)   # y_t = (1-2L) epsilon_t
```

```
fig,ax = plt.subplots(1,3, figsize = (12,4))
```

```
ax[0].plot(ma_1)  
ax[0].set_title("MA(1) with theta_1 = 1")
```

```
ax[1].plot(ma_2)  
ax[1].set_title("MA(1) with theta_1 = 0.5"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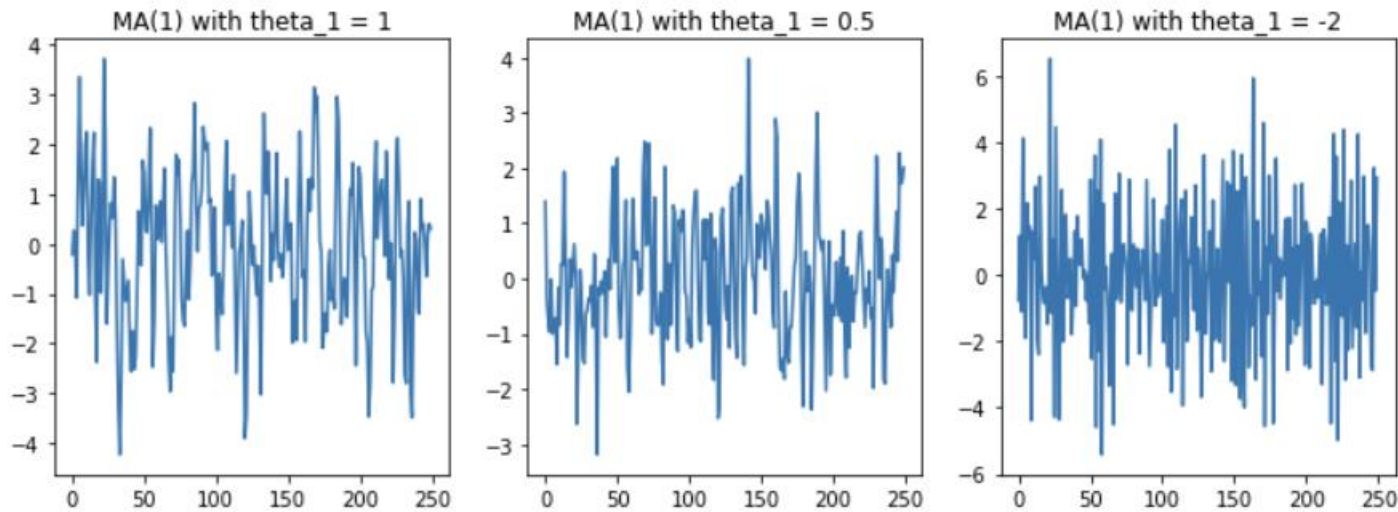
```
ax[2].plot(ma_3)  
ax[2].set_title("MA(1) with theta_1 = -2")
```

```
plt.show()
```

# 시계열 모형

## MA (q) 모형 생성하기

`ArmaProcess(ar = [1], ma = [1, theta_1, theta_2, ..., theta_q])`로 생성



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 $\theta_1$ 의 값에 따라 모형 형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특정한 트렌드도 없고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정상성을 만족함을 확인하실 수 있다.

# 시계열 모형

## ARIMA (p,d,q) 모형 생성하기

`ArmaProcess(ar = [1, -phi_1, -phi_2, ..., -phi_p], ma = [1, theta_1, theta_2, ..., theta_q])`로 생성 후 `unintegrate(x, level)`

ARIMA (p,d,q)를 따르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선

- ARMA (p,q) 과정을 따르는 데이터를 생성하고
- 이 데이터가 d 번 차분한 값이기 때문에 원상복귀해주는 `unintegrate`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. `unintegrate (x, level)` 에서 만약 1차 차분이라면 `level = [1]`, 2차 차분이라면 `level = [1,2]`과 같이 정의해주어야 합니다.

# 시계열 모형

## ARIMA (p,d,q) 모형 생성하기

```
np.random.seed(12345)

from statsmodels.tsa.arima_model import unintegrate, unintegrate_levels

arma_1 = gen_arma_samples(ar = [1,-.5], ma = [1,1], nobs = 250) # 차분한 값이 ARMA (1,1)을 따름
arma_1 = unintegrate(arma_1, [1]) # unintegrate: 차분한 값을 다시 원상 복귀

fig,ax = plt.subplots(1,2, figsize = (16,4))

ax[0].plot(arma_1)
ax[0].set_title("ARMA(1,1) with phi_1 = 0.5, theta_1 = 1")

ax[1].plot(arima_1)
ax[1].set_title("ARIMA(1,1,1) with phi_1 = 0.5, d = 1, theta_1 = 1")
plt.show()
```

# 시계열 모형

## ARIMA (p,d,q) 모형 생성하기

```
np.random.seed(12345)

from statsmodels.tsa.arima_model import unintegrate, unintegrate_levels

arma_1 = gen_arma_samples(ar = [1,-.5], ma = [1,1], nobs = 250) # 차분한 값이 ARMA (1,1)을 따름
arma_1 = unintegrate(arma_1, [1]) # unintegrate: 차분한 값을 다시 원상 복귀

fig,ax = plt.subplots(1,2, figsize = (16,4))

ax[0].plot(arma_1)
ax[0].set_title("ARMA(1,1) with phi_1 = 0.5, theta_1 = 1"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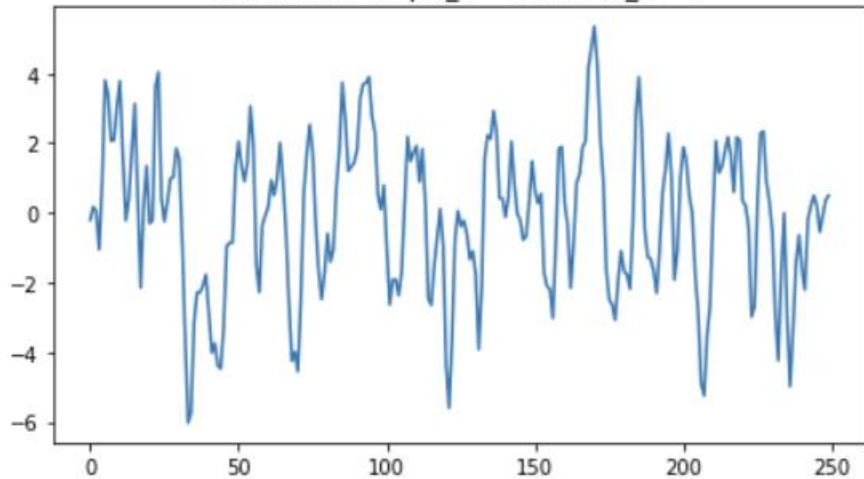
ax[1].plot(arima_1)
ax[1].set_title("ARIMA(1,1,1) with phi_1 = 0.5, d = 1, theta_1 = 1")
plt.show()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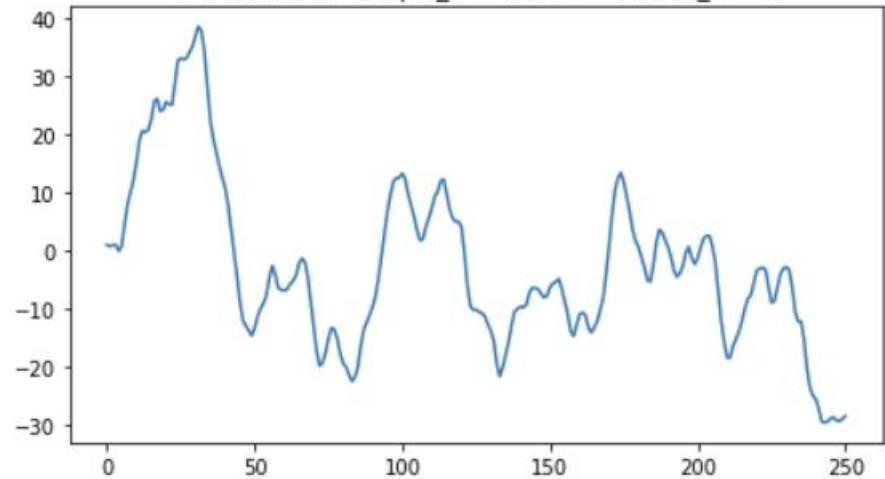
# 시계열 모형

## ARIMA (p,d,q) 모형 생성하기

ARMA(1,1) with  $\phi_1 = 0.5$ ,  $\theta_1 = 1$



ARIMA(1,1,1) with  $\phi_1 = 0.5$ ,  $d = 1$ ,  $\theta_1 = 1$



# 시계열 모형

**ARIMA, Python으로 하는 시계열분석 (feat. 비트코인 가격예측)**

2010년 1월 1일 ~ 2012년 12월 31일